



제목	The Ottoman Road to War in 1914: The Ottoman Empire and the First World War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Cambridge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0. 12. 9.
저자	Mustafa Aksakal
출판도시	Cambridge
페이지수	234
ISBN 또는 ISSN	978-0521175258

내용 요약

『1914년 오스만의 전쟁으로 가는 길: 오스만 제국과 1차 세계대전』은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에 돌입하게 된 이유를 추적한 책이다. 이제까지 오스만의 지도자들이 탐욕스럽고 무능하여, 혹은 팽창주의적인 환상을 가지고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결국 제국 붕괴를 초래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저자 약사칼은 당시 오스만 지도자들이 국제적인 위협과 국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독일과의 동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러시아가 발칸 지역과 코카서스 지역을 위협하고 있었고, 영국과 프랑스의 지원이 미흡한 반면 독일은 오스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스만 지도부는 독일과의 동맹을 생존의 길로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저자의 결론은 오스만 지도부가 1차 세계대전을 ‘커다란 기회’로 생각하였고, 전후의 안보를 확보하고 ‘국제적인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였기 때문에 전쟁에 동참하였다는 것이다.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서론 ‘제국주의 시대에 추구하는 주권’은 제국주의 전쟁인 1차 세계대전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1장은 발칸 전쟁 이후 지적, 감정적 흐름을, 2장은 1914년 그리스와의 갈등 과정을, 3장은 국제 질서 속에서 오스만인들의 상황을, 4장은 위기의 상황에서 1차 세계대전을 커다란 기회라고 보는 입장을, 5장은 국제적인 주도권 다툼을, 6장은 전쟁을 통한 안전 보장의 문제를 설명하였다. 결론에서 저자는 전쟁이 발발할 때 오스만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 특히 군국주의와 민족주의는 현대의 터키를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하였다.